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주님 공현 대축일

제2231호

2025년 1월 5일(다해)



오늘의 미사

▶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 제1독서: 이사야서 60,1-6

▶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제2독서: 에페소서 3,2.3ㄴ.5-6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 복음: 마태 2,1-12

▶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평일미사	화, 수, 금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사목 일정

1)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01월 05 (일)	오후 4시
01월 12 (일)	오후 4시
01월 19 (일)	미사 없음
01월 26 (일)	오후 4시
02월 02 (일)	오후 4시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2) 성당 도네이션 감사 드립니다.

- 고하식품 떡국떡(1/1/25)
- 명도회 회원들(12/25/24 음식 행사)

■故 이기환 부리모 형제님께서 지난 11월 28일 (목) 향년 9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고인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미사	2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연도	오전 9시 30분

-성당 연도는 2월 2일 교중 미사 후에 있습니다.

■故 광경희 데레사 자매님께서 12월 16일(월) 향년 88세로 선종하셨습니다.

고인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미사	1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연도	오전 9시 30분
하관식	오후 1시 Hawaiian Memorial Park

-성당 연도는 1월 5일 교중 미사 후에 있습니다.

사목위원회

1) 설 명절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안내
1월 29일(수)은 설입니다. 이에 본당에서는 1월 25-26일 동안 모든 미사에서 합동위령미사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미사예물 접수는 1월19일(일)까지 미사예물을 접수 받습니다. 또는 1월 24(금)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1월 25(토)-1월 26일(일) 모든 미사 30분 전에 연도를 할 예정입니다(새벽 미사는 미사 후)

2) 한글학교, 주일학교 봄학기 개강 안내

한글학교 등록비-\$170(형제 및 자매 할인: 점심 식사 포함 또한 온라인 수업도 있습니다.)

한글학교	1월 18일(토)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20분
주일학교	1월 18일(토) 오후 2시 45분~오후3시 30분

문의처: 류영미 막달레나 교감

전화번호:808-398-1275

3) 감사 드립니다

- 헌화회(크리스마스 트리, 구유장식,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25일 음식 행사(자모회, 여성부회장)
- 24/25일 미사 (전례부, 복사단)

4)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 시설분과장 - 임공빈 야고보
- 청소년분과장 - 류영미 막달레나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 ◦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마마우 바비큐(타운에 위치)
케이더링, 가족행사, 각종 큰 행사 음식전문 예로니모/808-941-6262, 808-743-8200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1) 성령기도회 모임 안내

일시: 1월 5일(일) 연도 후

장소: 성당

2) 상임위원회 모임 안내

일시: 1월 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3) 다락방 모임 안내

일시: 1월 1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4) 연령회 공지 사항

1월 19일 연령회 모임 시작과 함께 2025년 연령회비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연령회의 발전을 위해서 연령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분들도 관심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처: 각 미사 방명록 코너

연락처: 이영미 세실리아 연령회 회장

전화: 808-664-0632



재정위원회 2차 헌금 안내

1월 25/26일 Church in Latin America and Black & Indian Missions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12월28/29)\$5,493

주일헌금	교무금	구유예물	특별헌금
\$3,149	\$1,740	\$15	\$589

성탄절 헌금(12/24-25): \$8,514

주일헌금	교무금	구유예물	특별헌금
\$4,082	\$1,880	\$2,452	\$100



알아드립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칙서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 발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희년을 공식 선포하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낙담으로 얼룩진 세계에서 기쁘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고 요청했다. 교황은 2024년 5월 9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성문(聖門) 앞에서 주님 승천 대축일 저녁 기도회를 주례하면서 칙서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Spes Non Confundit, Hope Dose Not Disappoint)를 통해 2025년 희년을 선포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가끔 지치고 상처받는 일상에서 희망이 필요하다"며 "우리 마음은 진실과 선과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우리의 소망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황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과 밖 모든 것들이 희망을 갈망하고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다"며 2025년 희년의 주제가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칙서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에 따르면, 2024년 12월 24일 성 베드로 대성당 성문이 열리며 희년이 시작돼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이어진다. 칙서에는 2025년 희년의 취지가 "신앙인들은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가져야 하고, 교회는 항상, 어디에서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이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교황은 희년을 선포하던 저녁 기도회 강론에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다가올 희년 동안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희망을 기뻐하고, 속고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희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올해 기도의 해 기간에 너무나 많은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자"며 "희망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심각하게 상처받고 망가진 피조물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황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필요하지만, 특히 "오직 '지금, 여기'의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과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희년을 선언한 칙서에는 2025년에 325년 5월에 시작된 니케아공의회 170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교회일치에 힘쓰는 기간이 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돼 있다. 칙서에는 가톨릭교회와 가톨릭신자들이 희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로 다루어져 있지만, 교황은 "희년 축제에 타 그리스도교 교회와 공동체들의 참여, 니케아공의회 1700주년의 재조명을 원한다"고 밝혔다. 니케아공의회에서 채택된 신경은 모든 교회가 일치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가톨릭 신문

ARBOR Financial Group NMLS# 236669

심소영: 주택용자담당
Cel:(808)798-5100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 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Email:sharis@arborfg.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인명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劉進吉 Augustine)
축 일	9월 20일
활동 연도	1791-1839년

성 유진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또는 아우구스티노)는 선조 때부터 당상 역관을 지내온 중인 계급의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심이던 그는 20세 이전에 이미 유식하다는 평판을 들었지만,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제쳐두고 오로지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10년 이상이나 불교와 도교를 통하여 인간과 세상의 기원 및 종말을 깨우치려고 노력하던 중, 당시 훌륭한 양반집의 많은 학자들이 천주교를 믿는다 하여 죽음을 당하니 즐거운 낯으로 죽는다는 말을 듣고는 천주교야말로 참된 종교라고 여겨 천주교에 관한 책을 구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자기 집 장롱에 바른 헌 종이에 영혼, 각혼, 생혼이란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그것을 떼어 앞뒤를 맞추어 보니 그것이 곧 “천주실의”(天主實意)라는 책임을 알았다.

그때 그는 정귀산이란 이가 천주교를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를 찾아가 교리를 물어 보았으나, 정귀산은 대답하기를 피하고 서울에 사는 흥 암브로시우스(Ambrosius)를 소개해 주었다. 유진길은 곧 흥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 교리를 배우고 교리서를 얻어 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천주교의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켜나가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하상은 동료 교우들을 모아 선교사 영입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 그는 정하상 바오로(Paulus)를 알게 되어 1824년에 정 바오로와 함께 사신의 역관으로 들어가 북경으로 갔다. 그는 구베아(Gouvea) 주교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고 조선에 선교신부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이듬해인 1825년에는 정하상, 이어진 등과 함께 로마 교황께 청원서를 올려 조선 교회의 딱한 사정을 알리고 하루 빨리 신부를 보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 편지 덕분에 1831년 9월 9일자로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고, 이어서 선교사들도 입국하게 되었다. 1833년에 중국인 유 파치피코(본래 이름은 余恒德) 신부가 입국하고, 뒤를 이어 모방(Manbant, 羅) 신부와 샤스탕(Chastan, 鄭) 신부 그리고 앵베르(Imbert, 范世亨) 주교가 각각 입국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움틀 무렵 새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는 교회의 주요 인물이었으므로 즉시 체포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형제와 친지가 찾아와 배교를 강요했으나 그는 “나 때문에 당신들이 고초를 당할 것을 생각하니 대단히 마음이 괴롭지만, 천주를 안 뒤에 그분을 배반할 수 없으며 육신의 사정보다도 내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 교우가 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포장이 그에게 “신부가 숨어 있는 곳을 대라”고 하자 그는 “서양 선생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것은 오직 천주의 영광을 현양하고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지키게 해서 영혼을 구제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 도리를 전하여 죽은 후에 지옥의 영원한 괴로움을 면하고 천당에 올라가 끝없는 진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교를 전하려고 생각하면서 어찌 스스로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 명예와 돈과 쾌락을 구하려면 무엇 때문에 훌륭하고 돈 많은 고국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9만 리 먼 곳에 있는 이 나라에 왔겠습니까? 그들을 맞아들인 자는 바로 저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그는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가 숨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은 죄로 주리형과 줄톱질형을 받았다. 이리하여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정하상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받고 치명하였다. 때는 1839년 9월 22일이요,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그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

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
상속, 절세, 롱텀케어, 생명보험, 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213-321-8787

뷰티터치(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 271-4802

(주)에이스원글로벌(사슴태반 전문기업)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youngminina@gmail.com
문의: 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

Ginzawon(긴자원)
Korean B.B.Q(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